

감상부터 구매까지...“예술적 취향 키워요”

‘예술공간 집 X 와사비아’

31일까지 아트컬렉팅 프로젝트
임남진·이인성·하루K 등 14명
45점 전시... 10만원~2천만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술 시장의 열기가 뜨겁다. 올 첫 아트페어였던 화랑미술제(16일~20일)는 역대 최고 매출인 약 177억원을 기록했다. 기존 최고 기록이었던 지난해 72억원의 2.4배 수준이다. 관람객 수 역시 5만3000명으로 최대기록을 세웠다. 지난해 서울, 부산, 대구 등에서 열렸던 아트페어는 모두 성황을 이뤘다.

광주 미술 시장은 아직에도 이런 흐름에서 조금은 벗어나 있는 듯하다. 그런 점에서 지역 작가들을 꾸준히 발굴해온 예술공간 집과 전시컨설팅 사업을 기반으로 작가미술장터를 열어온 플랫폼 와사비아가 힘을 모아 올 첫 아트컬렉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건 작지만 의미있는 행보다.

‘예술공간 집 X 와사비아’ 1st 아트컬렉팅 프로젝트 ‘Dear Myself, 완전히하지 않은 마음을 위하여’가 오는 31일까지 광주시 동구 예술공간 집(장동 39-28)에서 열린다.

작품 구입은 갤러리 뿐 아니라 최근 광주문화재단이 오픈한 광주문화예술 통합 플랫폼 ‘디어마이광주’(https://dmgj.kr) 스토어 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이번 기획에는 하루K·이인성·이세현·서영기 등 직접 작가 장터사업을 진행해 온 작가들과 최근 K옥션 경매에 꾸준히 참여한 김성결·정승원 작가, 또 중진작가로 묵직한 활동을 지속해온 임남진·조정태·김유섭 등이 참여했다. 또 박성준·윤연우·임현재·정정하·황정석 등 총 14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전시작은 회화(한국화, 서양화), 사진, 프린트 에디션, 드로잉 등 각 작가들의 대표작이라할 수



오는 31일까지 예술공간 집에서 열리는 아트컬렉팅 프로젝트 ‘Dear Myself, 완전히하지 않은 마음을 위하여’

있는 작품 45점을 선별했다. ‘지역’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 동시대 미술 흐름에서 중요한 작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치와 의미를 담보한 대표작들이 선정 기준이었다. 가격대는 10만원대에서 2000만원대까지 다양하다.

지난 2007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플랫폼 와사비아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작가미술장터 사업인 ‘예술산책’을 개최해왔으며 광주아트페어 참여, 전시기획, 운영 등 다양한 아트프로젝트들을 지속해왔다. 예술공간집은 2017년 개관 이래 지역 작가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기획전, 추천작가전 등 꾸준히 전시를 기획하고 작가발굴에 힘을 쏟아왔다.

두 곳 모두 지역과 밀착된 활동을 펼치면서 지역 미술 시장의 중요성을 절감했고, 지역 작가들을 알리는 창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느꼈다. 소중한 작가들을 많이 알고, 숨어 있는 컬렉터들에게 지역작가들을 적극적으로 소개해



보자는 데 의기투합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1년에 1~2차례 꾸준히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갤러리 개관 시간: 오전 11시~오후 6시. 문의 062-233-3342.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Dear Myself

‘광주문화자산콘텐츠화제작’

4월4일부터 신규 창작물 공모

지역 문화예술 자원을 소재로 한 문화예술 콘텐츠 지원사업이 진행된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황종년)은 지역문화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광주문화자산콘텐츠화 제작지원’ 공모를 추진한다. 이번 공모의 지원 분야는 공연예술·시각예술·융복합 장르다.

공연예술(3000만원~5000만원)은 광주의 근현대 문화예술 자원을 모티브로 특정 스토리를 갖춘 신규 창작물에 한한다. 시각예술(1500만원~3000만원)은 영상·영화·애니메이션·웹툰 등의 제작 계획을, 융복합(1500만원~3000만원)은 기초 공연예술 간 융합이나 타 장르 간 크로스오버, 융복합 콘텐츠 제작 계획을 모집한다.

광주시 소재 설립 1년 이상 문화예술 단체로 미발표 작품의 창작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 시 중간 평가를 통해 2년 연속 지원할 예정이다. 접수는 4월 4일~11일(오후 6시 이전)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온라인 접수해야 한다.

한편 문화재단은 광주학 총서 발간, 광주학 콜로키움 개최, 광주모노그래프 시리즈 등 인문교양 서적 발간을 통해 근현대 문화 자원을 발굴하고 기록하는 데 힘써왔다. 문의 062-670-7462.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서구문화원 ‘신비한 예술학교’

예술단체 공모...24일부터 접수

광주 서구문화원은 학생들에게 예술을 통한 창의체질의 기회를 제공하는 ‘신비한 예술학교’ 공모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예술가 또는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프로그램(프로젝트형, 공연형)을 오는 5월 말부터 10월까지 광주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특별한 문화예술교육으로 진행한다. 접수는 오는 24일부터 4월 7일까지다.

이번 신비한 예술학교는 모두 1억8800여원을 지원하며 프로젝트형은 최고 800만원, 공연형은 1회당 19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광주지역 문화자원(역사, 문화, 국·공립 문화기반시설)을 예술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문화예술교육과 공연을 통해 예술을 보다 생동감 있고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서구문화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미술은행·정부미술은행 공모

국립현대미술관...11억7천만원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정부미술은행은 ‘2022 미술은행 공모제’와 ‘2022 정부미술은행 공모제’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과 정부미술은행은 매년 공모제를 통해 미술품을 구매한다. 올해 구입 예산은 약 11억7000만원이다. 구입 작품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에 대여된다.

다음 달 5일까지 누리집에서 응모할 수 있다. 공모 부문은 한국화, 서예, 서양화, 조각, 공예, 판화, 사진 등 다양하다. 올해는 여러 매체를 결합했거나 기존 부문에 편입되지 않는 새로운 형식을 사용한 작품을 수집하는 복합매체 부문이 신설됐다.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공모에는 대한민국 국적 작가로 최근 5년 이내 개인전 1회 이상 개최 실적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다. 응모 작품 가격은 1억3000만원 이내이다.

정부미술은행 공모에는 미술인 외에 개인 소장가, 화랑 등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작품가격 제한도 없다.

두 미술은행 중 한 곳에만 응모할 수 있다. 심사 결과는 7월 발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상상이 펼쳐지는 미술 놀이터

전남도립미술관, 참여형 교육공간 ‘어린이 아틀리에’ 운영

‘동심 가득한 미술관으로 초대합니다.’

전남도립미술관에 어린이를 위한 참여형 교육공간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사진>

2층 ‘어린이 아틀리에’는 기존 지하 1층에서 운영 중이던 ‘어린이 아틀리에’와 연계한 어린이 창작 놀이 공간으로, 전문적이고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및 예술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의 사·지각적 감각을 확장하고자 조성됐다.

공간은 구름, 무지개, 해, 달, 별 등 동심에 어울리는 실내장식과 아이형 전장 구조물을 활용해 설계했다.

2층 아틀리에에서는 현재 ‘어린이 책 속 예술나라-색깔과 모양으로 상상하기’를 주제로 한 참여형 전시가 열리고 있다. 20세기 초 구성·표현주의적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제작한 ‘아티

스트 북’을 중점적으로 만나는 기획전이다.

미술관은 앞으로 우리나라에 잘 알려지지 않은 어린이 그림책 명작을 발굴·소개해 어린이들이 색채와 형태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미술과 문학을 융합시킨 참여형 복합 전시를 통해 미술관의 통합적 교육 기능을 확장시킬 방침이다. 전시 도서 선정 및 공간 구성에는 ‘재미마주’ 이호백 대표가 공동기획자로 참여했다.

‘어린이 아틀리에’는 예약제(온라인 접수)로 운영될 예정이다. 현장 교육은 4월부터 주 1~2회 만 5세~11세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참여 인원은 1회당 10명으로 한정한다. 문의 061-760-3225.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한 땀 한 땀 ‘자수일상’

여성작가 기획전, 4월24일까지 광주 롯데백화점 갤러리



곽복희 작 ‘나비’

여성 예술가 11인이 한 땀 한 땀 수놓은 작품들을 롯데백화점 광주점에서 만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다음달 24일까지 11층 갤러리에서 여성작가 특별 기획전 ‘리조이스: 자수일상’을 진행한다. 21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여성의 행복을 삶, 꿈과 도전을 응원하는 ‘리조이스’를 주제로 마련됐다. 여성작가 11인이 전통 공예를 현대 예술로 승화시킨 자수 작품을 선보인다. 곽복희, 김민혜, 노현민, 박연신, 신승혜, 이민지, 이주희, 정순옥, 최향정, 한승희, 한정혜 작가가 참여한다.

전시에서는 다양한 기법과 표현 방식에 비춰진 우리나라 자수문화의 발전을 살펴볼 수 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자수는 동서양은 물론 다양한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예술로 전통적으로 여성의 영역으로 규정됐고 여성이라 하면 반드시 배우고 익혀야 하는 과업이자 의무였다”며 “한편으로는 여성의 사회 활동이 제약됐던 시기에 유일하게 지식을 전수하고 자아를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된 세계로서 숨겨온 가치를 조명 받고 있다”고 전시 취지를 설명했다.

관람 시간 오전 10시 30분~오후 7시.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노현민 작 ‘가을도’